

영화 <카트>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덕춘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ffect of movie <cart> on viewer's political and social recognition

Dug-Chun Park

Dept. of media Communication, Dong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뉴스 미디어로 분류할 수 있는 영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를 점화할 수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 대학생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카트'의 관람 유무가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실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98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을 처치 집단과 비처치 집단 등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종속변인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노동 운동의 필요성, 야당 지지도와 현 정부의 지지도 등을 설문조사로 측정하여 변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은 영화 '카트'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성향이 있고,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해 노동운동을 더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주제어 : 영화, 수용자, 점화효과, 정치적 인식, 노동 운동

Abstract This experimental research explores the effect of the movie that can be classified as non-news media on viewers' political and social attitude on the theoretical basis of priming effect, focused on the movie 'cart' that deals with non-regular workers' labor movement.

For this experimental research, one group of subjects composed of university students were exposed to movie 'cart', and the other not to the movie. After watching a movie, each group of subjects responded to questions that are designed to measure the seriousness of non-regular workers' problem, the necessity of labor movement, support of opposition party, support of the current government.

This research found that subjects exposed to the movie 'cart' consider non-regular workers' problem more serious and supports opposition party more positively than subjects not exposed to movie 'cart.' However hypotheses that expected the positive support of treated subjects on labor union and less positive support of treated subjects on current government were rejected.

Key Words : Movie, Audience, Priming Effect, Political Recognition, Labor Movement

Received 22 September 2015, Revised 29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Park, Dug-Chun (Dongseo University)
Email: parkdc2521@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지난해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당한 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회사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린 영화 '카트'가 상영되자, 여당과 야당은 앞다투어 시사사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비록 과거의 사건을 다룬 영화라고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파업이라는 것은 색깔이 빨간 사람들의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담은 영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야당과 경쟁하듯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며 공감과 지지를 밝히는 것은 뜻밖이다. 그것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정한 삶이 정권에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2].

영화를 포함한 텔레비전,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지난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과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터넷, 케이블TV, 위성TV, 스마트 미디어 등이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생활 전반에 미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부 연구들은 가설에 그치기도 했으며, 많은 연구들은 그 효과가 입증되고, 동료 연구자들의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 이용과 충족 이론, 의제 설정 이론, 점화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 틀짓기 이론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정착되기도 했다[11].

일부 연구들은 영화, 드라마 등 비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즉 멀티미디어 시대에 생산되는 뉴스 이외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용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룬 영화도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들이 뉴스 콘텐츠에 주목하느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사회문제를 다룬 영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영화, 드라마 등 비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의제설정이론, 점화이론, 문화계발이론, 틀짓기 이론 등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가 수용자의 정치적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온 점화효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실험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비뉴스 콘텐츠인 영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수용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특정 이슈에 접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수용자의 두뇌 속에 존재하는 해당 이슈와 유사한 의미의 생각이 활성화되며, 이렇게 활성화된 생각은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활성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소리나 이미지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자극에 노출될 때, 이 정보 자극이 두뇌 신경망을 통해 이동하다가 수용자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생각이나 정보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를 ‘점화효과(Priming effect)’라고 한다[9].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점화효과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대부분 미디어 효과 연구들은 정치적 점화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점화 작용의 결과로 수용자인 공중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하거나 선거와 같은 정치적 태도를 결정할 때 미디어의 반복적인 보도에 의해 점화된 이슈나 기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3]. 이러한 결정의 과정에서 오래 전에 점화된 이슈나 기사보다 최근에 점화된 이슈나 기사가 수용자의 정치적 태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정치적 점화효과의 핵심적인 내용이다[8].

미디어가 중요하게 보도한 내용을 수용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이론이 의제설정 이론이다[12], 이 의제설정 효과가 수용자의 의사나 태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화효과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론적인 함의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함의를 지닌다. 첫째, 점화효과를 가진 의제설정은 국제적 위기 상황

에서의 대통령 지지와 같은 렐리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대개 위기상황은 미디어 보도가 평상시와 달리 매우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위기 기간 동안, 미디어의 의제는 대단히 중요한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며, 그 미디어의 의제가 수용자의 의제가 되면,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5]. 이러한 위기 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미디어 보도는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에 대단히 우호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공중은 위기에 관한 정보를 뉴스 미디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미디어의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보도에 접화된 공중은 대통령을 더욱 지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렐리 효과이다.

둘째, 접화 기능을 가진 의제설정 기능은 주변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접화는 환경의 자극, 혹은 현저한 미디어 보도에 대한 무의식적인 정보처리의 결과이다. 따라서 정치적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정치적 엘리트 계층보다 그렇지 못한 비엘리트 계층이 정치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초지식으로서 현저한 미디어의 보도에 더 의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접화기능을 가진 의제설정 효과는 주변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14].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에 의하면, 미디어의 의제설정 기능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조건들은 정치적 흥미도와 관여도라고 한다. 정치적 엘리트와 정치적 비 엘리트 계층을 명확한 비율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엘리트 계층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비 엘리트 계층에게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이슈는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그들의 지각은 미디어 의제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1].

미국의 1992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부시 행정부의 부통령 던케일(Dan Quayle)이 자신의 연설에서 미디어를 통해 '가족의 가치'를 공중의제로 부각시키려 했다. 그 당시 부시의 지지도는 걸프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공중의 마음 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던케일은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가족의 가치'에 관한 관심으로 돌리고 싶었던 것이다[7].

정치적 접화효과에 대한 검증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수용자들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 기준과 그 비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주요 종속변수로 대통령 직무에 대한 만족도라는 종합적인 판단에 초점을 맞추었다[6]. 그러나 접화효과와 관점에서 보자면, 만약 미디어가 국내 이슈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었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외교나, 경제, 국방 등 다른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능력보다는 국내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능력이 더 큰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4].

정치적 접화효과는 수용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할 때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와 그 정보가 정치적 판단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요소이다. 크로스닉과 킨더(Krosnick & Kinder)[10]는 1986년 전국선거연구(National Election Study)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란 콘트라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레이건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공중의 평가에 미치는 접화효과를 측정했다.

1986년 미시건 대학교 정치연구센터(Center for Political Studies)에서 전국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86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장시간의 면대면 인터뷰를 통한 이 연구에서, 크로스닉과 킨더는 접화작용을 유발시키는 사건, 즉 이란-콘트라 사건이 발표되기 직전과 발표된 직후의 설문조사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외교 이슈와 국내 이슈 중 어떤 이슈가 응답자들의 레이건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수행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란-콘트라 사건 이전에는 국내문제가 외교문제보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직무수행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란 콘트라 사건 이후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외교 이슈, 특히 중앙아메리카를 둘러싼 이슈가 국내 이슈보다 레이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연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수용자들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접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접화효과에 관한 최근의 연구 중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의 연구가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 텔레비전 미디어의 뉴스 보도가 만드는 정치적 접화효과와 검증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영화[5], TV 심야 토크쇼[13] 등이 정치적 접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을 입증했다. 그리고 웨퍼와 그의 동료들(Sheafer & Weimann)[16]은 미디어가 대통령 이외의 다른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접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인 영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를 접화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던 영화의 정치적 사회적 접화효과를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효과 중 접화효과와 새로운 면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들이 유권자의 정치적 인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선거와도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정치적 접화효과 이론으로 이어져, 각종 미디어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이론의 여지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문,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은 저널리즘 분야의 정치적 접화효과와는 달리 저널리즘의 특성이 거의 없는 영화가 유권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는 극히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카트'가 우리 사회 유권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접화효과 이론을 바탕으로 실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가설1> 영화 '카트' 관람자는 비관람자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연구가설2> 영화 '카트' 관람자는 비관람자에 비해 산업현장에서 노동 운동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구가설3> 영화 '카트' 관람자는 비관람자에 비해 야당 지지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4> 영화 '카트' 관람자는 비관람자에 비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이다.

3.2 연구방법 및 변인의 측정

설정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 집단에게는 영화 '카트'를 대학의 시청각실에서 관람하게 한 후, 다른 한 집단에게는 영화 '카트'를 관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피험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노동 운동에 대한 관심 정도 그리고 야당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 등을 측정하였다[Fig. 1], [Fig. 2].



[Fig. 1] One of Impressive Scenes of Movie 'Cart'



[Fig. 2] One of Impressive Scenes of Movie 'Cart'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남자 대학생 52명, 여자 대학생 46명, 모두 98명이 참여하였으며,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는 51명,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는 47명이었<Table 1>.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 participants

Categories	Cart Viewer	No Viewer	sum
male	25	27	52
female	26	20	46
sum	51	47	98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들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문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 “귀하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노동 운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귀하께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 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노동 운동의 필요성 정도를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야당 및 현 정부 지지도 : “귀하께서는 야당(현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로 물어서, 야당과 정부 지지도를 각각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인식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영화 ‘카트’의 관람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 ANOVA of audience's recognition on seriousness of non-regular workers' problem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Cart viewer	51	5.40	1.45	8.25	1	.001
No viewer	47	3.25	1.28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25, df=1, p<.05).

즉,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평균=5.40)은 영화 ‘카트’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평균=3.25)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4.2 노동운동의 필요성 인식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영화 ‘카트’의 관람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노동운동의 필요성 인식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

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3> ANOVA of audience's recognition on necessity of labor movemen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Cart viewer	51	4.02	1.05	1.85	1	.25
No viewer	47	3.55	0.94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노동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85, df=1, p>.05).

따라서 영화 ‘카트’ 관람자는 비관람자에 비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 운동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2>는 기각되었다.

4.3 야당지지도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영화 ‘카트’의 관람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야당 지지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4> ANOVA of audience's support of opposition part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Cart viewer	51	5.86	1.52	5.16	1	.03
No viewer	47	4.35	1.29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야당 지지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6, df=1, p<.05).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의 야당 지지도(평균=5.86)는 영화 ‘카트’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의 야당 지지도(평균=4.3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4.4 현정부 지지도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용자의 영화 ‘카트’의 관람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현

정부 지지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5> ANOVA of audience's support of current governmen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Cart viewer	51	1.95	0.38	0.42	1	.68
No viewer	47	2.12	0.45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현 정부 지지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0.42$, $df=1$, $p>.05$).

따라서 "영화 '카트' 관람자는 비관람자에 비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4>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비뉴스 미디어인 영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태도를 점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한 집단의 대학생 피험자들은 영화 '카트'를 관람한 후, 다른 집단의 피험자들은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하여, 이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변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동안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의 수용자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노동운동에 관한 영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을 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98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인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노동 운동의 필요성, 야당 지지도와 현 정부의 지지도 등을 설문조사로 측정하여 변량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영화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은 영화 '카트'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야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카트'를 관람한 피험자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해 노동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2>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2014년 하반기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영화 '카트'가 영화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도와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실적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 피험자들의 속성상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영화의 관람으로 재점화되었으며, 야당에 대한 지지도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 피험자들의 노동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산업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경험이 없거나 혹 있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노동 운동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 '카트'의 관람으로 점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전통적으로 기존 정부에 대해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집단간의 차이를 찾아보는 통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집단간의 미미한 차이라도 표본의 수를 충분히 많이 확보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의 수용자 효과 연구들은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영화 미디어의 수용자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의 정치적 사회적 점화효과를 일부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아닌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

비록 탐색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영

화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비뉴스 미디어인 영화가 정치적 사회적 점화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추가적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Berkowitz, L.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istic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410-427, 1994.
- [2] Chosunilbo, "Angle of reporter", pp. 34, Dec. 2. 2015.
- [3] Coleman, R. & Banning, S., "Network TV News' Affective Framing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s: Evidence For A 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 Through Visual Framing", *Journalsi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3(2), pp. 313-328, 2006.
- [4] Ewoldson, D. R., Ewoldson, B. R., Carpentier, F. D., "Media Priming, An Updated Synthesis, edited by Jennings Bryant and Mary Beth Oliver", 2009.
- [5] Holbert, R. L., & Hansen, G. J., "Fahrenheit 9-11, need of closure and the priming of affective ambivalen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pp. 32, 102-129, 2006.
- [6] Iyengar, S., & Kinder, D. R.,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7] Iyengar, S., Peters, M. D., & Kinder, D. R., "Experimentla demonstrations of the non-so-minimal consequences of television news progra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p. 76, 848-858, 1982.
- [8] Iyengar, S., & Simon, A.,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Communication Research*, pp. 20, 365-383, 1993.
- [9] Jo, E., & Berkowitz, L. "A priming effect analysis of media influences: An update. In J. Bryant & D. Zillmann(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Hillsdale, NJ:Erlbaum, pp. 43-60, 1994.
- [10] Krosnic, J. A., & Kinder, D. R, "Altering the foundations of support for the president through prim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pp. 84, 497-512, 1990.
- [11] McCombs, M. E. & Shaw, D. H.,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pp. 36, 176-187, 1972.
- [12] McCombs, M. E. Lopez-Escobar, E., & Llamas, J. P., "Setting the agenda of attributes in the 1996 Spanish gener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pp. 77-92, 2000.
- [13] Moy, P., Xenos, M. A., & Hess, V. K., "Priming effects of late-night comed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18, pp. 198-210, 2005.
- [14] Perse, E. M., "Media Effects and Societ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1.
- [15] Roskos-Ewoldsen, D. R., Klinger, M., & Roskos-Ewoldsen, B., "Media priming", In R. W. Press, B. M. Gayle, N. Burrell, M. Allen, & J. Bryant (Eds.), "Mass media theories and processes: Advances through meta-analysis", pp. 53-80, Mahwah, NJ: Erlbaum, 2007.
- [16] Sheafer, T., & Weimann, G., "Agenda-building, agenda-setting, priming, individual voting intentions, and the aggregate results: An analysis of four Israeli elec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5, pp. 347-365, 2005.

박 덕 춘(Park, Dug Chun)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공학사)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언론학 석사)
- 2004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교수
- 2010년 8월 : 경북대학교(언론학 박사)
- 관심분야 : 방송 영상
- E-Mail : parkdc2521@hanmail.net